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목회자의 2023년도 목회 전망]
목회자들의 내년도 목회 중점 사항, ‘현장 예배’와 ‘소그룹’!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 1) 일반국민 의료기관 이용 실태
 - 2) 한국의 과밀문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내년도 목회 중점 사항, ‘현장 예배’와 ‘소그룹’!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한국교회의 문화와 목회 방향성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현재도 목회자들은 내년도의 불확실성과 시대 환경 변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내년도 목회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회자들은 내년도에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우리 연구소는 지난주에 이어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의 최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전략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들에게 내년도 목회 중점 강화 사항을 질문했는데,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 강화’와 ‘소그룹 강화’를 꼽았다. 현장 예배는 공동체성 회복과 교회 소속감 강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전략이라 한다면, 소그룹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부는 새로운 흐름(트렌드)이라 할 것이다.

이번 넘버즈(169호)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생각과 전략을 살펴보면서 독자들이 성공적인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 2

본 조사는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에서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목회 현실에서 목회 재설정(resetting)과 재가동(rebooting)이라는 주제로 교회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즉 목회자들이 현재 목회 현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목회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2023년 목회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교회들이 효과적인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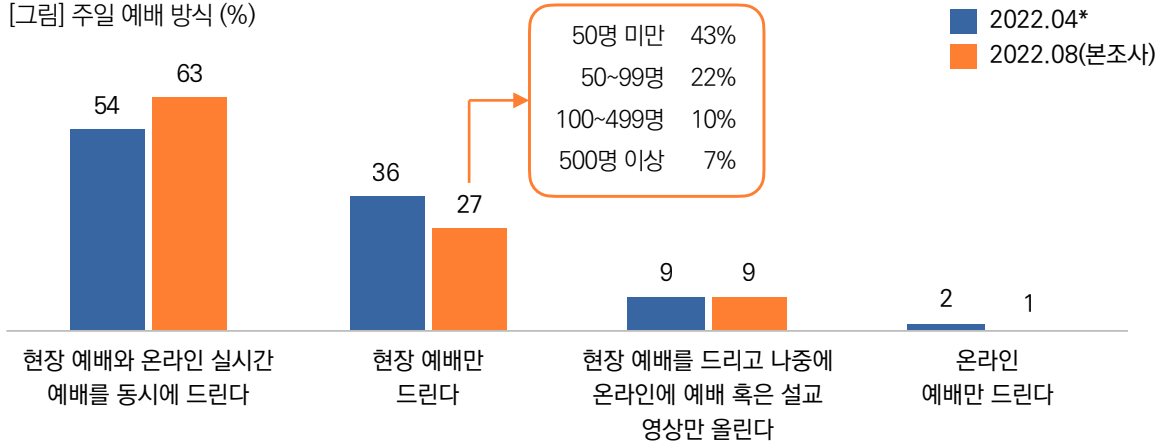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전국의 교회 담임목사
• 조사 방법	목회데이터연구소 보유 목회자 DB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
• 표본 규모	434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8월 17일 ~ 8월 23일(6일간)
• 조사 주체	한국교회지도자센터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현재 주일 예배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증가 추세!

- ▶ 현 주일 예배 방식을 묻은 결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드린다'가 교회 10곳 중 6곳 이상(6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장 예배만 드린다' 27%,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설교 영상만 올린다' 9% 등의 순이었다.
- ▶ 50명 이하 소형교회의 경우 아직까지 절반 가까이 현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 4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예배 형식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식의 예배가 점점 정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주일 예배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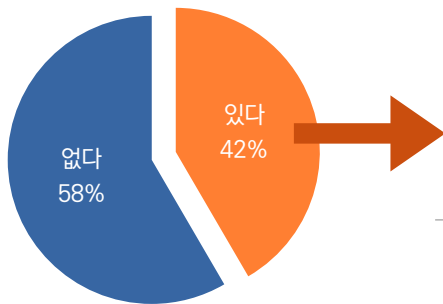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목회자 대상)', (예장 통합교단 담임목사, 전국 981명, 모바일조사, 2022.04.27.-30)

**2022.04 조사는 예장통합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2022.08 조사는 본 연구소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해석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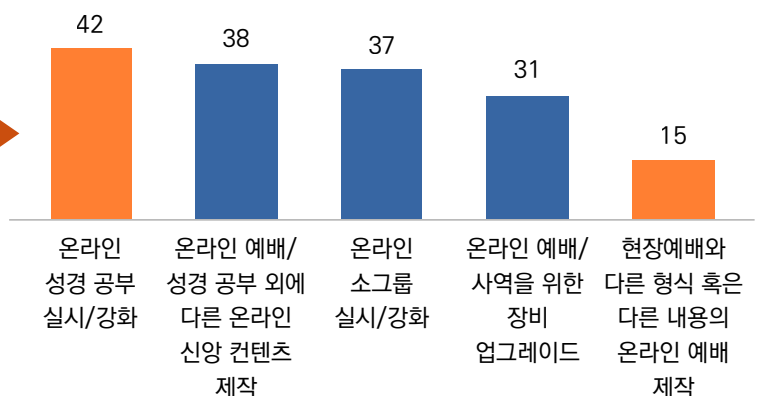
◎ 내년도 온라인 사역, 온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성경공부/소그룹을 강화하겠다!

- ▶ 내년도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없다'는 응답이 58%로 '있다' 42%보다 더 높았다. 다만,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의 경우 이보다 작은 규모의 교회보다 온라인 사역 강화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50명 미만 38%, 50-99명 44%, 100-499명 39%, 500명 이상 59%)
- ▶ 온라인 사역 강화 계획 내용으로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성경공부'(42%), '온라인 콘텐츠 제작'(38%), '온라인 소그룹'(37%)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 ▶ 한편, '현장 예배와 다른 형식/내용의 온라인 예배'를 계획하겠다(15%)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림] 내년도 온라인 사역 강화 의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



[그림] 내년도 온라인 사역 강화 내용 (1+2순위, 온라인 사역 강화 의향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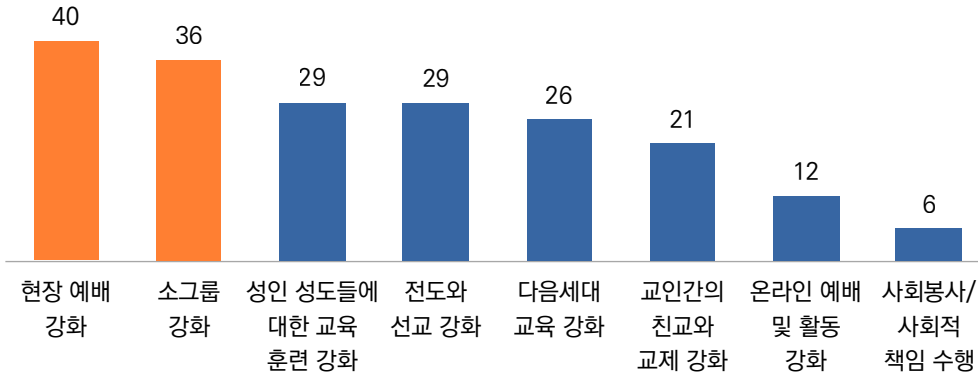


02

내년도 목회 중점 강화 사항, ‘현장 예배’와 ‘소그룹’!

- ▶ 목회자들은 내년도(2023년) 목회 계획에서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기 원할까? 이에 대해 ‘현장 예배 강화’(40%)와 ‘소그룹 강화’(36%)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 성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29%, ‘전도와 선교 강화’ 29% 등의 순이었다.

[그림] 2023년 목회 계획 중점 강화 사항 (1+2순위, %)



◎ 대형교회는 주요 사역 골고루, 소형교회는 선별적인 집중화 전략!

- ▶ 내년도 목회 계획의 중점 강화 사항을 교회 규모(장년 출석교인 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예배, 다음세대, 전도/선교 등 골고루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100명 미만 소형교회의 경우 현장 예배나 소그룹 등 선별적으로 집중화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표] 2023년 목회 계획 중점 강화 사항 (1+2순위, 교회규모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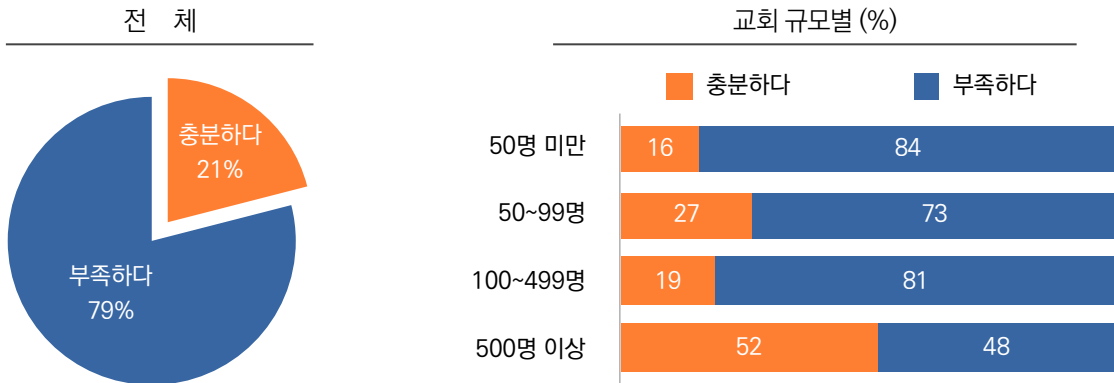
		현장 예배 강화	소그룹 강화	성인 성도들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전도와 선교 강화	다음세대 교육 강화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44	33	30	30	22
	50~99명	42	50	31	19	24
	100~499명	36	37	24	33	30
	500명 이상	31	17	35	35	35

03

성인 대상 교육 훈련, '부족하다'(79%)는 인식이 압도적!

- ▶ 앞에서 내년 목회 계획 중점 사항으로 '성인 교육 훈련'이 3위에 랭크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성인 성도 대상 교육 훈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목회자들의 답변을 보면 교육 훈련이 '부족하다'(79%)는 응답이 '충분하다'(21%)는 인식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 ▶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만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았을 뿐, 그 이하 교회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림] 성인 교육 훈련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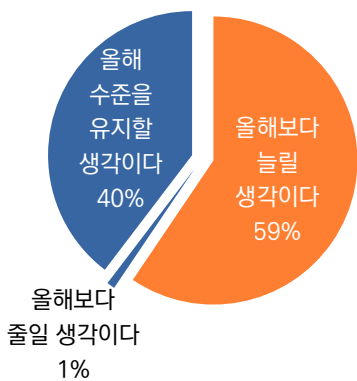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충분하다'(매우+약간), '부족하다'(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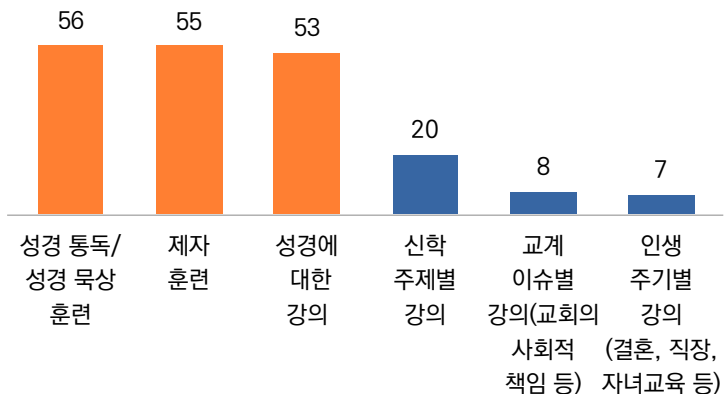
◎ 2023년에는 '말씀'과 '제자훈련' 중심으로 성인 교육 훈련 강화 계획!

- ▶ 이번에는 내년도 성인 교육 훈련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올해보다 늘릴 생각이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꼴(59%)로 가장 많았고, '올해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다'는 40%로 응답됐다.
- ▶ 한편 성인 교인 대상 교육 강화 내용으로는 '성경 통독/묵상 훈련' 56%, '일대일 제자훈련' 55%, '성경 강의' 53%가 모두 절반 이상 응답돼, 전체적으로 '말씀'과 '제자훈련'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반면, 결혼, 직장, 자녀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의 신앙교육과 교회의 공적 역할과 같은 주요 이슈별 교육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내년도 성인 교육 훈련 계획



[그림] 내년도 성인 교육 훈련 강화 내용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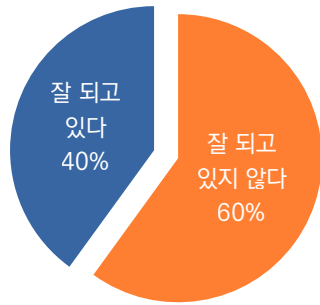


04

소그룹 사역, 잘 되는 교회보다 잘 안되는 교회가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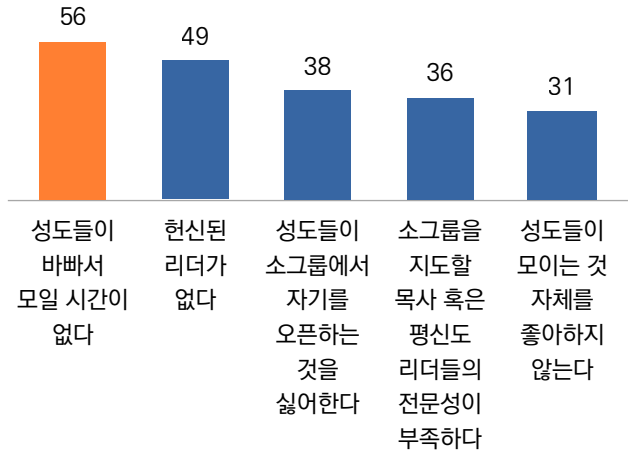
- ▶ 소그룹 운영에 대해 물었을 때, 60%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40%만 '잘 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4%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운영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 ▶ 소그룹 사역이 잘 안되는 이유로는 '성도들이 바쁘고'(56%) '헌신된 리더가 없으며(49%)', '소그룹에서 자기를 오픈하기 싫어한다'(38%) 등의 순으로, 성도들 자체의 문제와 리더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림] 현재 교회 소그룹 운영 수준*



*4점 척도 질문으로 '잘 되고 있다'(매우+약간), '잘 되고 있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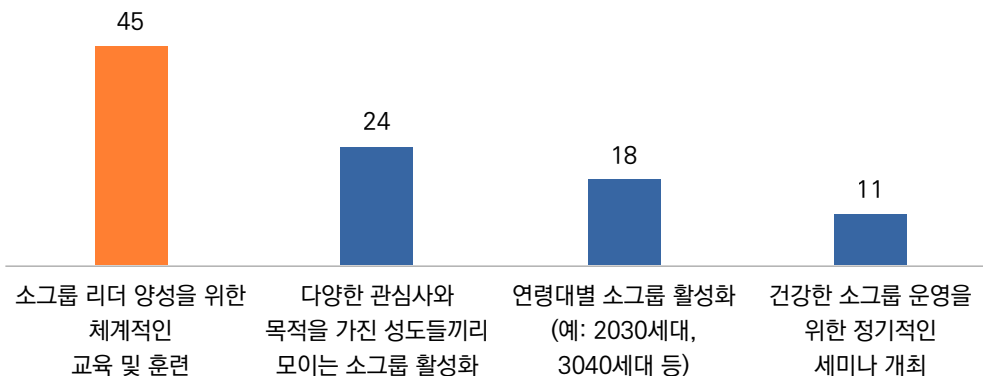
[그림] 소그룹 사역이 잘 안되는 이유 (1+2+3순위, 상위 5위, %)



◎ 소그룹 강화 필요 요건, '소그룹 리더 훈련'!

- ▶ 소그룹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소그룹 리더 교육 및 훈련'(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양한 관심사·목적별(24%)/연령대별(18%) 소그룹 활성화' 등이 뒤를 이었다.
- ▶ 이는 소그룹에 있어 '리더'를 키우는 것이 절대적이며, 한편으로 소그룹 구성 요인으로 취향, 연령 등 동질적인 성도들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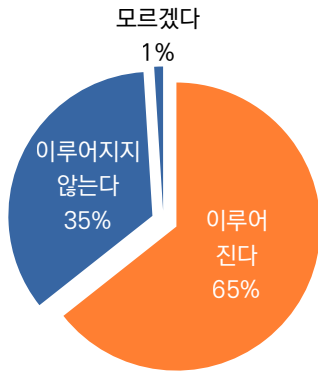
[그림] 소그룹 강화 필요 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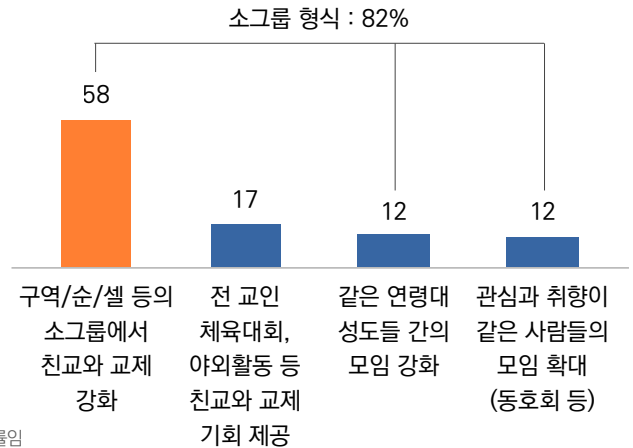
◎ 목회자들은 교제와 친교 강화 방법으로 ‘소그룹’을 생각해

- ▶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 교인들의 교제와 친교 수준을 살펴보면, 65%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35%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즉 교회 3곳 중 1개 교회 이상이 현재 교인간의 친교와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교제와 친교 강화 방법을 질문했는데, 목회자 대부분(82%)이 전 교인 체육대회, 야외 활동 같은 대규모 모임보다 ‘소그룹’ 응답이 높아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제와 친교 수준*



[그림] 교제와 친교 강화를 위한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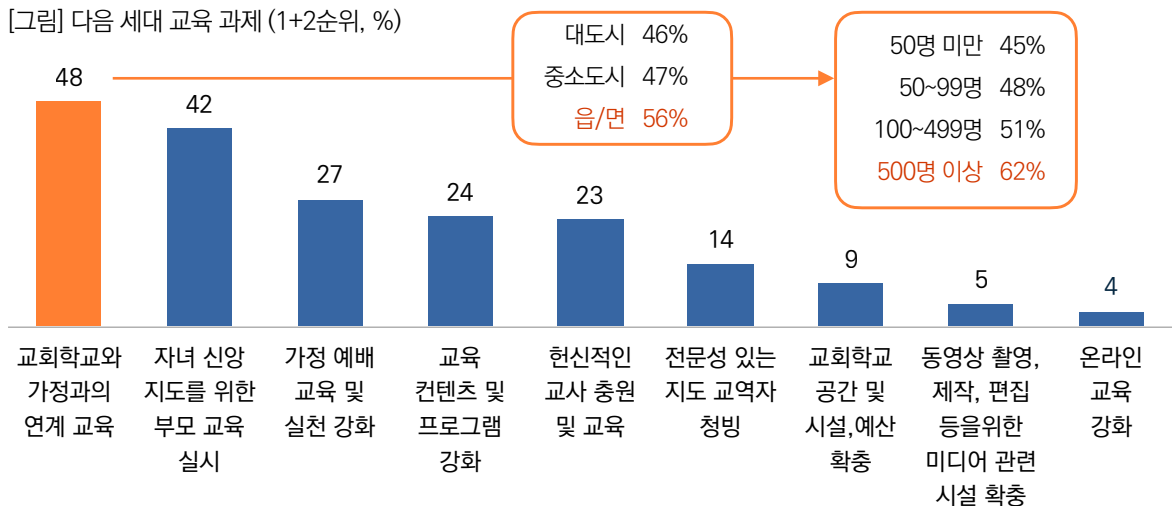
*4점척도 질문으로 (매우+잘) 이루어진다, (전혀+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률임
**합계가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임

05

다음세대 교육, ‘교회→가정→학생’의 삼각 연계가 중요!

- ▶ 내년도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교회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실시’가 42%로 높게 응답됐다.
- ▶ 이는 목회자들 사이에 다음세대 교육을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정-학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 ‘교회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은 읍/면 지역(56%)과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62%)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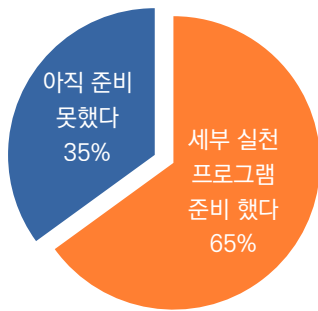
[그림] 다음 세대 교육 과제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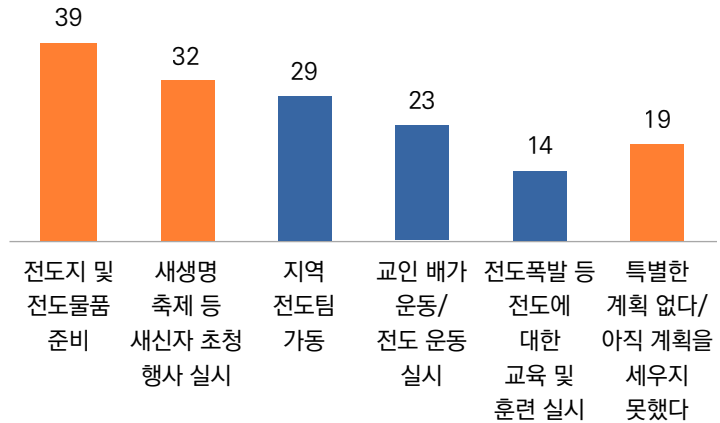
교회 3곳 중 1개 이상, 내년도 구체적인 전도 실천 프로그램 준비 못하고 있어

- ▶ 내년도 전도를 위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을까? ‘새생명축제 등 새신자 초청 행사’, ‘지역 전도팀 가동’ 등 구체적인 전도 실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는 각 프로그램별 20~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 규모별로 ‘100명 이상’의 교회는 ‘새생명축제 등 새신자 초청 행사’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았고, 50명 미만의 소형교회의 경우 아직 전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내년도 전도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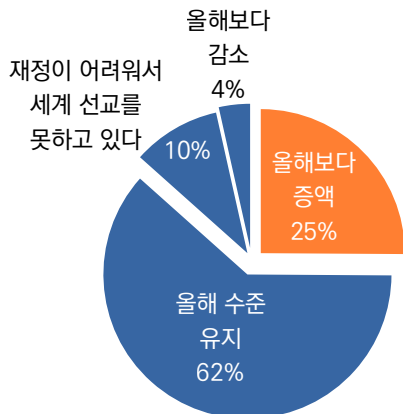
[그림] 내년도 전도 세부 계획 내용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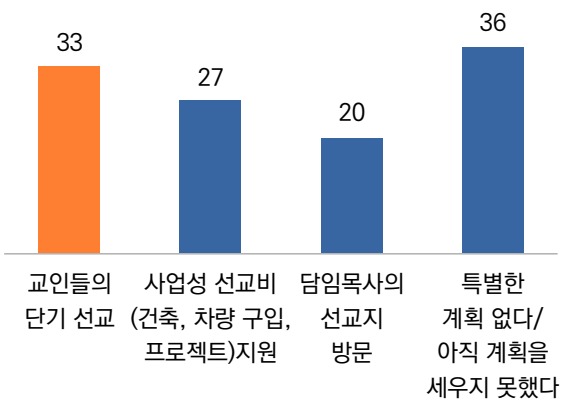
◎ 내년도 세계 선교 예산, 올해보다 다소 증액 예상!

- ▶ 내년도 세계 선교 예산과 관련, 10개 교회 중 6개(62%)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보다 ‘증액하겠다’는 교회가 25%로 ‘감소하겠다’는 교회 4%보다 많았다.
- ▶ 내년도 세계 선교를 위한 계획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교인들의 단기 선교’(33%)이었으며, ‘사업성 선교비 지원’(27%)등도 주요 계획이었다. 아예 ‘계획이 없다’는 교회는 3개 교회 중 1개 이상(36%)이었다.

[그림] 세계 선교 예산 계획



[그림] 세계 선교 계획 내용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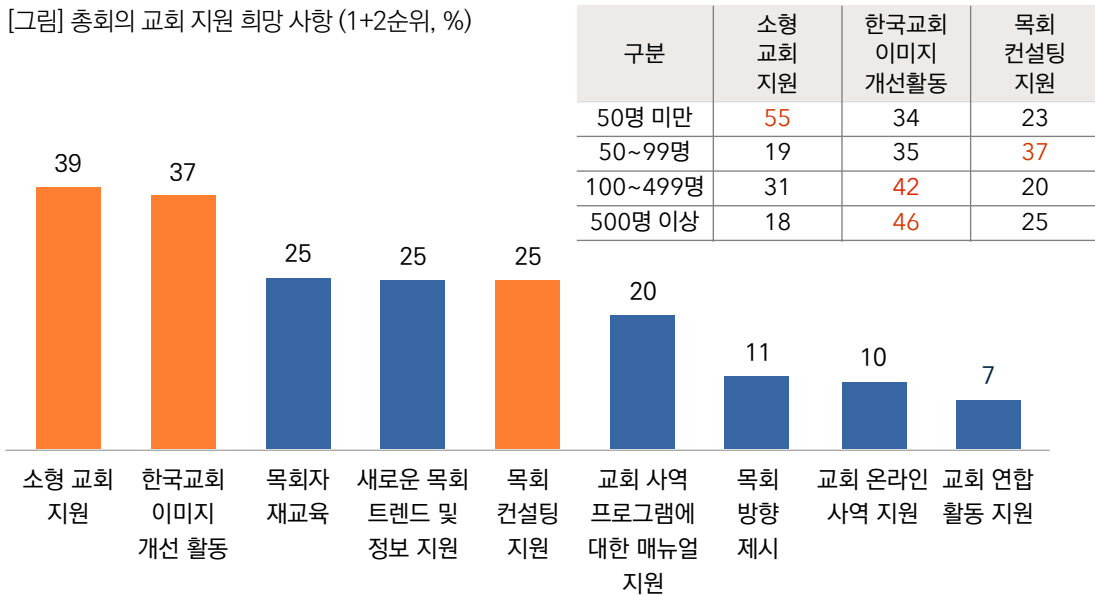


07

총회에 바라는 점, '소형교회 지원'과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 활동'!

- ▶ 총회가 교회에 지원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소형교회 지원'(39%)과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 활동'(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 ▶ 교회 규모별로, 50명 미만 교회는 '소형교회 지원', 50~99명 교회는 '목회 컨설팅 지원', 100명 이상 교회는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 활동'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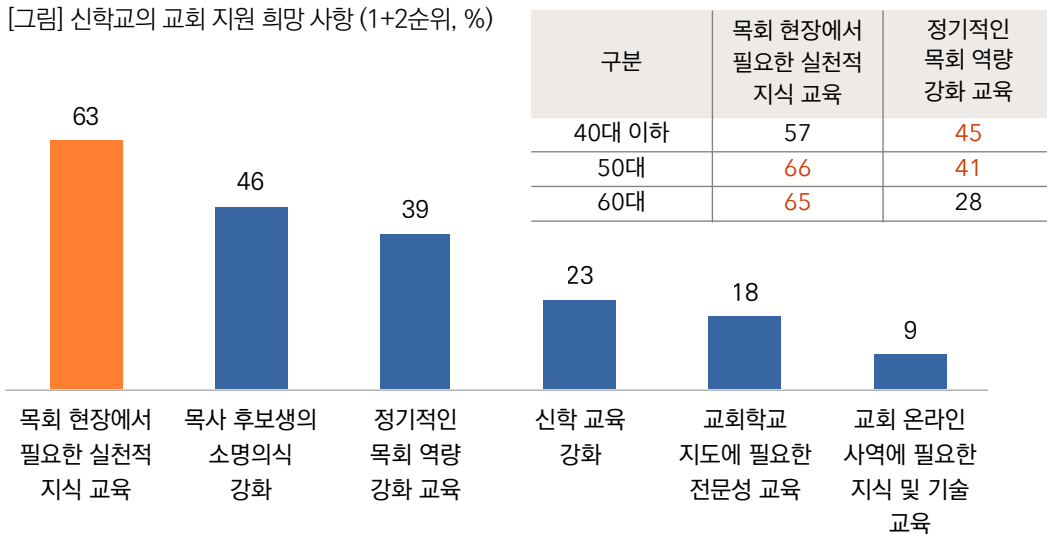
[그림] 총회의 교회 지원 희망 사항 (1+2순위, %)



◎ 신학교,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적 지식 교육 필요하다'

- ▶ 신학교가 개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적 지식 교육'을 응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적 지식 교육'은 50대와 60대가 40대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실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교육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신학교의 교회 지원 희망 사항 (1+2순위, %)



담임목사들이 내년도 목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였다. 첫째는 '현장 예배 강화'로서 40%나 되는 담임목사가 응답했으며, 두 번째로는 36%가 응답한 '소그룹 강화'였다. 이 두 사항은 지금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담임목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현재의 부정적 결과를 회복시키고자 이 두가지 사항을 꼽았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위축시켰지만 현재는 심리적으로 탈 코로나19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현장 예배 참석인원을 코로나 이전의 70% 정도 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축이 많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30%의 교인은 코로나19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예배 행태가 변화되어 고착되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넘버즈' 151호의 '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생활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온라인 신앙 생활에 대해 '긍정적' 42%, '보통' 42%, '부정적' 16%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대면 예배와 비교했을 때도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하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도 무난하다고 할 정도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온라인 예배에 긍정적인 수용 의사를 비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에 오가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편리성이 교인들의 예배 행태를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달라진 예배 행태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교회 출석 인원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문제인데 목회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도 목회 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현장 예배 강화'를 응답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찾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유익을 찾아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 출석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이 '현장성' 강화이다. 현장 예배를 잘 기획해서 현장 예배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찬양을 집에서 부르는 것보다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 부를 때 더 진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곡 선곡과 반주 그리고 찬양 인도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예배 때 혹은 그 전후에 성도들이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며 교제하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온라인 속에 숨어있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인들을 현장예배로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현장예배로 오게끔 하는 방법이 '소그룹'이다. 조사 결과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현장 예배 참석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목회자들은 내년 중점 강화 계획으로 소그룹 강화를 두 번째로 꼽았는데 사실 소그룹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멀어지게 한 사회적 변동을 초래했다. 공동체의 약화를 불러온 것이다. 이것은 사회 일반에서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났다. 본래 공동체로 나타난 교회가 이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공동체, 즉 소그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바빠서 모이지 않고 리더는 소그룹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헌신된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모임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까지 무릅쓰고라도 참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쁘기도 하지만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참여할만큼의 흥미와 유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이는 열심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고민을 집중해야 효과적인 소그룹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일반국민 의료기관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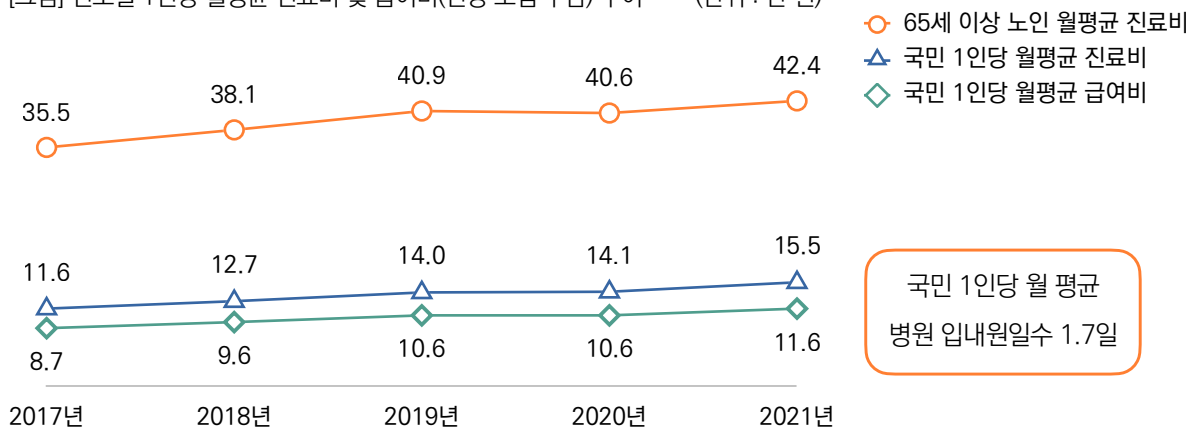
2.[한국의 과밀문화]



지난해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5만 5천 원, 이중 건강보험이 11만 6천 원을 부담!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5.5만 원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월평균 지급 금액(급여비)은 11.6만 원으로 나타났다.
- ▶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진료비의 75% 수준이다.
- ▶ 한편,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진료비는 2021년 기준 42.4만원으로 일반 국민 전체의 2.7 배에 달한다.
- ▶ 또한 일반국민의 월 평균 병원 입내원일수는 1.7일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급여비(건강 보험 부담) 추이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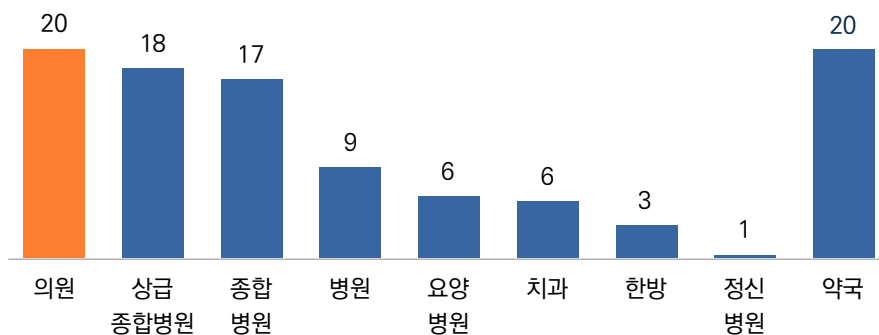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11

◎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이 가장 큰 점유율 차지!

- ▶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약국을 제외하고 '동네 의원'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높다.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7% 등의 순이다.

[그림]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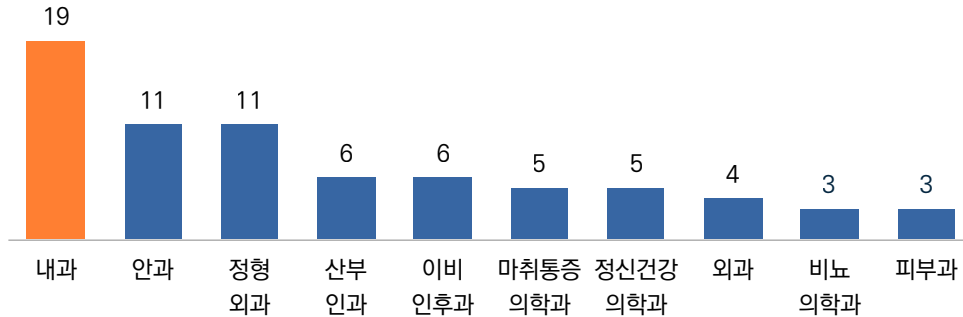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11

◎ 동네 의원 중에서는 ‘내과’가 단연 1위!

- ▶ 이번에는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살펴보자. 그 결과 ‘내과’가 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과 11%, 정형외과 11%, 산부인과 6% 등의 순이었다.

[그림] 의원급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중 (2021년 기준, 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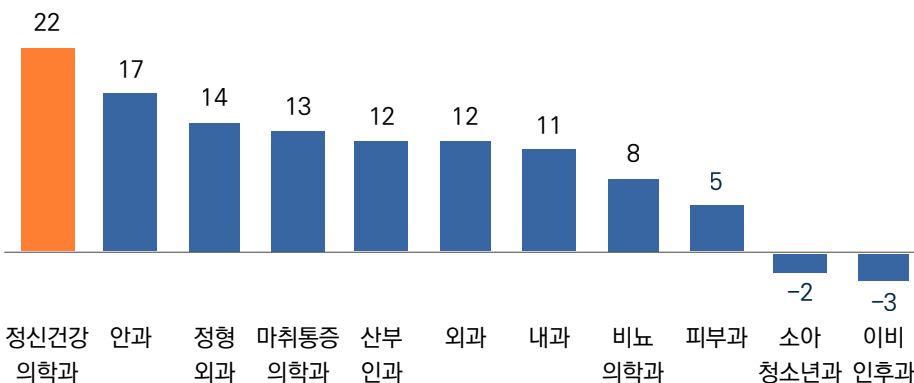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11

◎ ‘정신건강의학과’, 전년 대비 증가율 22%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높아!

- ▶ 의원급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부담 금액)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2%로 가장 높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 반면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대비 각각 -3%, -2%로 오히려 감소를 보여, 코로나 기간 동안 이용 환자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의원급 진료 과목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부담 금액) 증감률 (2020년 vs 2021년, %)



*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11

**참조) 조선일보, ‘정신건강과 진료 작년 22% 늘었다’ 기사 참조, 2022.11.11.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11/11/ITZD33YKNNDSZKDXVDF3LUDM/>)



수도권, 전국 면적의 12%이나 전체 인구 50% 거주!

- ▶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과 지방현황(수도권 권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 면적의 12%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수도권 중 '서울시 등 16개 시'를 포함하는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17% 면적에 72%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 집중도 편차가 큼을 보여준다.

[그림]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과밀 현황 (2021)

수도권 면적 vs 인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16개 시)
면적 : 전국 12%	면적 : 수도권 전체 17%
인구 : 전국 50%	인구 : 수도권 전체 72%

*자료 출처 : e-나라지표, 수도권과 지방현황(수도권 권역별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9)

**Note. 정부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수도권 과밀억제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사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등 10개동만 포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참조) 한국일보, "누구나 압사 직전의 경험이 있다"... 일상이 된 한국형 '과밀문화', 2022.11.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209440002934>)

◎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인구 밀도 단연 1위!

- ▶ 한국의 인구 과밀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1km²당 무려 516명을 기록해 OECD 38개국 중 단연 1위이다. 가로, 세로 각 1km 사각형 안에 사람이 516명 들어차 있는 셈이다. 2위는 네덜란드로 419명, 3위 이스라엘 418명, 4위 벨기에 3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OECD 국가 중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는 호주로 1km²당 3명으로 한국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표] OECD 주요국의 인구 밀도 (명/1km²)

국가별	인구밀도	국가별	인구밀도	국가별	인구밀도
1.대한민국	516	5.일본	333	28.미국	33
2.네덜란드	419	6.영국	277	36.캐나다	4
3.이스라엘	418	8.독일	233	37.아이슬란드	4
4.벨기에	375	14.프랑스	118	38.호주	3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동태 및 밀도, 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5&conn_path=I2)

(통계청 '인구동태 및 밀도'에서 OECD 38개국만 2020년 기준으로 추출함. 단, 미국,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해당 연도 데이터가 없어 2019년 자료 사용)

*참고) 한국일보, "누구나 압사 직전의 경험이 있다"... 일상이 된 한국형 '과밀문화', 2022.11.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20944000293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0호\(2022년 11월 3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4호\(2022년 11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10.29 참사 국정조사 요구 인식 등

◎ 사회 일반

[세계인구 오늘 80억명 돌파... "인류발전 새 이정표"](#)

연합뉴스_2022.11.15.

[전기료, 韓 126원·日 315원·獨 636원... 가스비, 韓 18원·英 51원](#)

조선일보_2022.11.16.

[한국 '세계 1% 과학자' 70명 보유](#)

매일경제_2022.11.16.

[미혼 70% "결혼 안해도 돼"...이유 1위 남자 "돈 없어서" 여자는?](#)

조선일보_2022.11.17.

["한국, 5년 전보다 안전" 6.5%P ↓ ... "5년 뒤에는 안전"도 감소](#)

중앙일보_2022.11.16.

["접종해도 걸리는데" "부작용 걱정"에...추가 접종률 4.8% 그쳐](#)

연합뉴스_2022.11.16.

[전자담배·가향담배... 담배 소비량 늘었다](#)

조선일보_2022.11.21.

◎ [2022 대학평가]

[서울대 7년 연속 1위...건국대, 29년만에 사상 첫 톱10 진입](#)

중앙일보_2022.11.14.

[기업이 선호하는 출신대학은 고려대, 금융권은 서울대](#)

중앙일보_2022.11.16.

◎ 청소년 / MZ세대

[기초학력미달 10년 새 6배,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OECD 1위](#)

중앙일보_2022.11.15.

[초중고생 31% 비만-과체중 '코로나 집콕'에 활동 준 탓](#)

동아일보_2022.11.16.

[소아·청소년 불면 환자 급증 ... 놔두면 우울증·학습장애 유발](#)

매일경제_2022.11.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기업**

[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40대보다 2배 더 아프다](#)

한겨레_2022.11.14.

[경영 위기 조짐 보이면...이공계 CEO 지고 경상계 뜬다](#)

매일경제_2022.11.15.

[물가까지 고려하니 하위 20% 소득 6.5% 감소...상위 20%의 3배](#)

연합뉴스_2022.11.21.

[직장인 10명 중 8명 “이런 회식이라면 참석 OK”](#)

경향신문_2022.11.11.

[직장인 1년차 평균 연봉은 3396만원... 5년차엔?](#)

파이낸셜뉴스_2022.11.09.

[삼성전자, 구글 제치고 '글로벌 최고 브랜드' 1위 올라](#)

연합뉴스_2022.11.20.

[세계 집값 급락...닛케이 “한국 빛 가장 위험”](#)

조선일보_2022.11.20.

◎ **건강**

[5년 이내 절반 사망하는 '이 병'... 4년 새 27% 급증](#)

헬스조선_2022.11.15.

[술 안마시던 사람, 맥주 2캔씩 '고위험' 음주시 암 위험 12% ↑](#)

중앙일보_2022.11.15.

◎ **국제**

[빅맥값 日 3890원 vs 韓 4900원... 日 '엔저' 바람에 관광객 북적](#)

동아일보_2022.11.19.

◎ **기독교 / 종교**

[대학생 '탈종교·탈교회화' 심화됐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11.16.

[종교인, 전문직 중 지능·폭력범죄 최다](#)

더미션(국민일보)_2022.11.17.

◎ **칼럼**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리스찬타임스_2022.11.15.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웅,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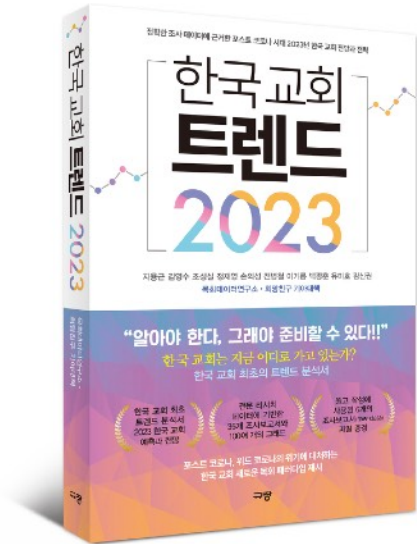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1. 다음주 [넘버즈] 휴간 안내 |

- 이번 11월부터 넘버즈는 매월 5주 차(화요일 기준, 년 4회)의 경우 연구주간으로 정하여 휴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쉬없이 달려오고 있어 잠시 쉬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자 다음주(11월 29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소 소식 2.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된 지 2달 쯤인데 아직까지도 종교 부분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고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